

월간 <한전> 통권 400호 발간이 가지는 의미

정해진 | 한국전력공사 홍보실 홍보기획팀 과장(jah@kepcoco.kr)



한국전력의 사보 월간<한전>이 통권 400호를 넘어섰다. 1970년 10월 통권 1호로 출항한 이래 36년만의 일이다. 한 기업이 30년 이상 존속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하나의 제호로 30년 넘게 발간되어 온 잡지는 더욱 드물다. 그만큼 기업의 뿌리가 깊고 튼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 자체로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한국전력 사보의 역사는 그 이전으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회사 내에서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지난 10월 한국전력은 월간<한전> 통권 400호 발간을 기념하는 전시회와 특집호를 내고 한국전력의 사보가 걸어온 길을 집중 조명했다.

월간<한전> 400호 (2006.10)

일반적으로 잡지계에서는 1950년대 후반기를 우리나라 사보의 태동기라 부른다. 1958년 태평양의 <화장계>(지금의 <향장>)를 처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통권 500호를 발간한 두산의 <OB뉴스>(지금의 <두산>)를 그 다음으로 친다. 월간<한전>만 따지고 보면 이들보다 한참 늦어 보인다. 그러나 월간<한전>이 있기까지 그 전통과 명맥을 쫓아가 보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보의 르네상스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잡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

현존하는 국내 최고(最古)의 社報 <전우(電友)>, 우리나라 기업 사보의 역사 5년 앞당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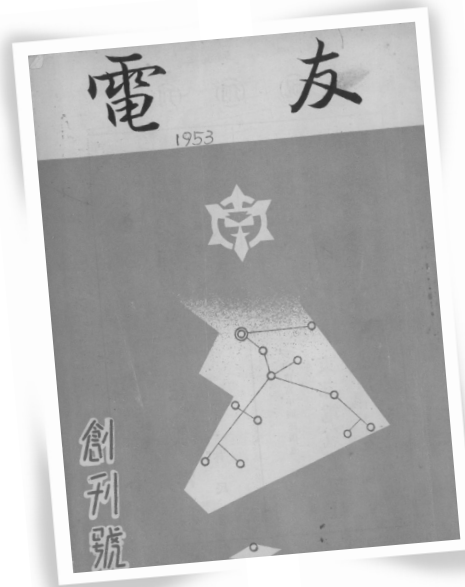
한국전력 사보의 역사는 1950년대 전후 한국전력의 전신인 경성전기, 남선전기, 조선전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력은 1961년 2개의 배전회사(경성전기, 남선전기)와 1개의 발전회사(조선전업)가 구조개편을 통해 통합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당시 경성전기와 남선전기는 수도권과 그 이남지역의 배전을 각각 관할했고 조선전업은 발전을 담당했다. 한국전력의 사보역사는 전신인 이들 3개 회사에서부터 시작한다. 기록으로 보면 경성전기의 <경전(京電)>이 1948년 8월에 창간되어 그 순서가 제일 빠르다. 남선전기의 <전우(電友)>는 1953년 3월에 창간되었고 조선전업은 <전력(電力)>을 50년대 중반부터 계간으로 발간했다. 아쉽게도 <경전>이 책자로 남아있지 않아 <전우>가 지금까지

통설로 알려진 <화장계>보다 앞서는 현존하는 국내 최고(最古)의 사보인 셈이다. (1940년대 발간됐던 남선합동전기(남선전기의 전신)의 <사보>는 전기박물관에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지만 일본어로 쓰여 있어 제외한다.) 한국전력은 이번 기념 전시회를 통해 1953년 3월 <전우> 창간호부터 통권 10호까지 총 10권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 사보의 역사를 5년이나 앞당기는 일이다.

한국전력의 전신인 남선전기 사보 <전우> 창간호 1953.3

100여 페이지 분량에 탄탄한 편집구성, 다양한 문인과 화백의 작품활동 공간 되어줘

이처럼 한국전력의 사보는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사보문화를 개척한 선구자요 그 처음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편집체계 또한 알찬 면면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사보발간 초기인 60-70년대 국내 대부분의 사보가 10여 페이지 내외의 소책자였던 점에 비하면 <전우>는 분량도 100여 페이지에 이르고 그 내용도 회사현황과 사내 소식, 논단, 기술정보, 직원참여 문예작품, 사



외 문인의 창작 등 탄탄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당시 일반 잡지조차도 드물었던 시대에 직원 은 물론 사외의 작가들에게도 다양한 창작활동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례로 남선전기의 <전우>에는 김동리(金東里)의 “마음에 피는 꽃”, 황순원(黃順元)의 “산골”, 최태응(崔泰應)의 “응시(凝視)”와 같은 단편소설과 김환기(金煥基), 이준(李俊), 백영수(白榮洙) 등 한국미술계를 이끌었던 화백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또 한국전력으로 통합된 이후 만들어진 <한국전력> 12호와 17호 표지그림은 박수근 화백의 작품으로서 그의 유족들이 작품전시회에 빌려갈 정도로 지금 유일하게 <한국전력>에만 남아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기관지인 노보도 있었다. 한국전력의 전신인 이들 3개사의 노보도 사보 못지않은 편집과 체계를 보여준다. 1954년에 창간된 경성전기의 <월간노동>이나 1955년에 창간된 남선전기의 <남전노보>를 보면 분량이나 게재된 내용에 있어서 사보에 필적할 만하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꽃 핀 <전우>


산간벽지 흩어져 있는 전국 각지 전력인들의 의사소통 역할 다해

남선전기의 <전우>는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무렵인 1953년 3월에 창간되었다. 지금으로서는 사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나 당시에 있어서는 비용은 물론 편집이나 인쇄기술, 인력 등을 감안하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혼란스러운 격동기에 사보를 창간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아사(我社)는 남한 전체 광범위한 지역에 공(亙)한

세계일보

2006년 10월 31일 018면



남선전기 '전우' 창간호

한전 社報 보니 현대사가 보이네

국내 최초 1953년 창간~10호까지 첫 공개

국내 사보(報)의 효시로 알려진 태평양전쟁의 ‘복합체’인 남선전기 창간 ‘월간’보다 5년이나 앞선 사보기 처음 공개됐다.

한국전력은 30일 한전의 전신인 남선전기가 1953년 3월에 창간한 사보 ‘전우(電友)’ 창간호와 10호까지 모두 10권을 찾아보서를 삼성중본사 코너에 전시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1961년 7월, 당시 국내 3대 전기회사였던 경성전기와 남선전기(해운대), 조선전업(광안리) 등의 통합으로 설립됐다.

한전에 따르면 ‘전우’는 국내 사보 역사를 알았다는 할 외에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에 회사원들과 시노사시, 직원들의 문예작품과 논단, 전자기술 정보 등 탄탄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한전으로 통합된 이후 ‘전우’를 대신한 월간 ‘한국전력’의 12호(1962년)와 17호(1963년) 표지그림도 박수근 화백의 작품으로 유족들이 기증할 요청했을 만큼 사보기가 뛰어난 사보다.

한전은 다시 재호를 지금의 ‘한전’으로 바꿔 1970년 10월 사보를 창간, 이날 통권 400호를 발간했다.

그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박정희 정권이 재4공화국 서정순신 박관으로 1972년부터 14개월간 정권되고, 지난 1976년 5월호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기를 표지로 삼았다가 보안상의 이유로 표지가 잠깐재 다룬 기사가 문화공보부 검열에 걸려 인쇄된 178800부가 모두 소각 처분되기도 했다.

kolee@segye.com

사업체인 고로 방방곡곡 인적무영(人跡無影)한 산간벽지에 산재한 변전소, 감시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회사의 운영동향에 있어서 제반소식이 막연함과 사회신지식교류에 낙오를 면치 못할 차제(此際)에 숙제숙망(宿題宿望)이던 사보 <전우>가 발행되어 다소간 호상계몽(互相啓蒙)함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실로 동경(同慶)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전우> 창간호(1953.3)에서 발췌)”

산업복구 작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전력공급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한 일이었다. 남선전기를 비롯한 한국전력의 전신인 이들 3개사는 전력설비 복구와 함께 전력 공급을 위해 한참 애쓰고 있을 당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소식과 지식을 전하고 의사소통의 길이 되어 줄 수단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사보였으며 우리나라 사보문화가 전력회사에서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도 전국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던 전력회사만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합이전 사보의 전통 월간<한전>으로 그대로 이어져 400호에 이르기까지 순탄치 않은 세월도 담아

통합 이전 3개사의 사보 전통은 통합이후에 더욱 세분화되고 발전된다. 1961년 7월 통합 한전은 출범과

동시에 사내소식지로서 <사보>와 문예·학술지로서 <한국전력>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사보>는 순간 또는 반월간으로 발행했으며 그야말로 사내의 다양한 소식들을 직원들이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됐다. 특히 “사진 뉴스”는 전국 사업장의 생생한 현장모습이 흑백사진으로 담겨있어 사료적 가치로도 매우 귀중하다. <한국전력>은 월간으로 발간되었으며 250여 지면을 통해 직원들의 발표의욕을 채워주는 문화와 학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사보>는 월간<한전>이 창간되는 1970년 10월까지 총 256호를 발간하였고 이후 공문서, 인사이동, 규정 등 관보성격으로 축소돼 90년대 인터넷에 그 역할을 내어줄 때까지 1000호 이상을 발간하며 존속했다. <한국전력>은 1964년 6월 통권 21호까지 발간하고 곧 폐간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해 주주총회에서 공보실(당시 홍보실 이름)의 지원이 많다는 것이 지적되어서였다.

1970년 10월에 창간한 월간<한전>은 그 이후 400호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현대사의 굴곡에 따라 순탄치 않은 세월이 그대로 담기기도 했다. 제4공화국 서정쇄신 바람은 곧 한전에도 영향을 미쳐 72년부터 74년까지 14개월간 정간되었고 76년 5월호 표지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을 표지로 삼았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잘려나간 채 발간되었으며 80년 5월호는 사복사태 당시 시위대의 변전소 피습사건을 다룬 기사가 문공부 검열에 걸려 인쇄된 1만 8천부 모두가 소각처분 됐다.

커뮤니케이션의 첨병으로서 구심점 역할 다해 500, 1000호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것

하지만 월간<한전>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의 첨병으로서 회사와 함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직원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통로로서 그리고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역량을 결집시켜 경영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낸 것이다.

남선전기의 <전우>에서부터 지금의 월간<한전>에

이르기까지 한국전력의 사보는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민생활 증진의 일꾼으로서 함께 해온 전력인의 땀과 노력, 그리고 회사의 역사와 비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경영진과 직원, 직원과 직원을 잇는 가교로서 회사 내 의사소통의 길이 되어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세계 최강이 되고자 하는 한국전력의 도전과 열정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의 사보 월간<한전>은 쉽지가 돌아가는 전력산업의 현장의 모든 전력인과 함께 500호, 1,000호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다.

문화일보

2006년 10월 30일 012면

눈길 끄는 社報 2제

▶▶ 한국전력 '한전' 36년역사 지령 400호 국내 사보중 '최고령'

▶▶ 현대오일뱅크 'Hello...' '웰진' 전승 3년만에 '중이사보'로 재창간

▶▶ 36년 400호를 맞았다. 이번 가운뎃 36년간 우연히 발행된 사보가

▶▶ 36년 400호를 맞았다. 이번 가운뎃 36년간 우연히 발행된 사보가

▶▶ 36년 400호를 맞았다. 이번 가운뎃 36년간 우연히 발행된 사보가

▶▶ 36년 400호를 맞았다. 이번 가운뎃 36년간 우연히 발행된 사보가

▶▶ 36년 400호를 맞았다. 이번 가운뎃 36년간 우연히 발행된 사보가

▶▶ 36년 400호를 맞았다. 이번 가운뎃 36년간 우연히 발행된 사보가

